

담관 결석 예측을 위한 위험군 분류 및 간담도스캔의 유용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지상원 · 정준표 · 유영훈* · 이덕용 · 정연수 · 이세준
송시영 · 정재복 · 이관식 · 이상인 · 강진경

목적: 담석증 환자는 담관 결석의 존재 위험도에 따라 대략 3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위험군은 담관 조영술의 필요없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며, 고위험군은 바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를 시행해서 담관 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해주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간위험군의 접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군 분류방식의 타당성 및 중간위험군 환자에서 담관 결석의 예측에 있어서 간담도스캔이 유용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2001년 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임상증상과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CT 등의 영상진단에서 담석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저위험군은 간기능 검사와 영상진단이 모두 정상인 경우로 수술 전 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고위험군은 영상진단에서 담관 결석이 확인된 경우와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면서 영상진단에서 담관의 확장(7.0 mm<)이 있는 경우로 바로 ERCP를 시행해서 담관 결석을 확인하였다.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범주에 들지 않는 환자를 중간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과 간담도스캔을 시행하였고, MRCP에서 담관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는 ERCP를 실시하였다. 저위험군에서는 임상적 추적관찰을 통해서, 고위험군에서는 ERCP 결과를 통해서, 그리고 중간위험군에서는 MRCP 및 ERCP의 결과와 임상적 추적관찰을 토대로 담관 결석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중간위험군에서 담관 결석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간담도스캔의 성적을 조사하였다. **결과:** 저위험군 235명 중 1명(0.0%)에서 수술 후 담관 결석이 확인되었다. 고위험군 64명 중 54명(84.4%)에서 수술 전 ERCP를 통해서 담관 결석이 확인되었다. 중간위험군 40명 중 4명(10.0%)에서 담관 결석이 존재하였으며, 담관 결석의 존재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간담도스캔의 예민도는 100.0%, 특이도는 77.1%, 양성 예측도는 33.3%, 그리고 음성 예측도는 100.0%였다. **결론:** 상기의 위험군 분류방식은 담관 결석의 존재 여부를 예측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비교적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담도스캔은 그 예민도와 음성 예측도는 높지만, 낮은 특이도와 양성 예측도로 인하여 중간위험군에서 담관 담석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담관 결석, 간담도스캔